

## 기계설비시공개선사례집 출판기념회 개최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는 지난 2월 24일 '기계설비시공개선사례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회장 이용우)는 지난 2월 24일 서울 청담동 호텔 리베라 로즈홀에서 150여명의 기계설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계설비시공개선사례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이용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004년 초판, 2008년 개정판 출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개정판을 발간했다”면서 “사례집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기계설비인들의 시공능

력 향상을 다지는 기반이자, 정밀시공을 통해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명실상부한 현장실무 시공가이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해돈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사례집이 모든 건설현장에 보급돼 동일한 공사에서 더 이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하며, 하자 제로를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로패를 받은 김양섭 전임 회장 및 이재곤 편집위원장(한화건설 부장)



감사패를 받은 정해돈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사진 왼쪽)



감사패를 받은 김경희 총괄본부장(사진 오른쪽)



전국대학설비분야교수협의회 김규생 교수(사진 왼쪽)에게 장학금 전달

기계설비시공개선사례집은 지난 2004년 초판본이 나온 이후 기계설비와 관련된 많은 분야 종사자들의 지침 및 교육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이번 개정판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기술적 해결방안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것으로, △장비설치공사 △기계실 배관공사 △공조배관공사 △공조덕트공사 △위생설비공사 등 총 13개장 238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개정판은 최근 확대·적용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 대한 사례와 부록에 설비공사의 초기 가설공사 관련사항을 추가해 내용을 더욱 풍부

히 구성했다.

한국종합건설기계설비협의회는 이날 발간한 시공사례집을 전체 건설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협의회는 이번 사례집 출판에 기여한 협의회의 김양섭 전임 회장 및 이재곤 편집위원장(한화건설 부장)에게 공로패를, 정해돈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경희 대한설비건설협회 총괄본부장, 한국설비기술협회의 임형택 사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또한 건축설비 분야 4개 대학 4명의 재학생에게 각각 100만 원씩 장학금을 수여했다. 🌐